

研究資料

食糧自給度 算定基準의 修正

70년대 후반 이후 쌀과 보리의 自給에도 불구하고 全體食糧의 자급률은 크게 떨어졌고 그 결과는 海外依存度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國民經濟의 고도성장과 食生活의 歐美化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식량의 安全保障力 확보라는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食糧自給力 향상의 과제는 증가일로에 있는 需要측 사정과 농지면적의 제약 그리고 낮은 生産性 등 사정을 고려하면 하루이틀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課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輸入代替와 곡종간의 소비대체 그리고 낭비의 억제 등 需要管理對策을 통해 수입수요는 줄여나가야 할 것이고 한편 供給측에서는 새로운 수요증가 품목에 대한 植付面積의 확대, 生産성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과 價格보장 등의 대응책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와 같은 요구는 政策 차원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課題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추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와 併行하여 事務的인 차원에서도 現實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例로서 食糧自給率산정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식량자급률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년의 需要量에 비해서 국내에서 생산 供給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比率로서 이것은 극히 사무적인 차원의 것이다.

그러나 食糧自給率은 식량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指標이며 이것은 生産政策설정에 중산지표가 되는 것이고 국민에게 식량사정을 알리는데 있어서는 가장 集約的인 홍보지표가 된다는 면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食糧自給率은 현재의 식량사정을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食糧이라 할 경우 穀物은 물론이고 채소류, 과일류, 畜産物類 등으로 그 범위가 늘어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사실이며 金額면에서는 非穀類의 비중이 오히려 높은 실정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식량자급률은 70년대 이전에 있어서 食糧으로 통칭되던 糧穀管理法상의 양곡에 대한 자급률에 지나지 않을 뿐 식량전체(食品)의 수급사정을 반영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다.

식량자급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식량의 需給

정책과 정책수립 당국자간(특히 타부처간)의 격차없는 의사소통, 그리고 對國民홍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는 면에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지표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穀類는 물론이고 두류와 소채류, 과일류, 그리고 축산물 등 전체식량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수급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自給率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급률 산정의 경우 그 기준은 重量, 金額, 熱量 등이 있으나 대상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증량에 의한 산출은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라는 면에서 취약점이 있을 것이므로 金額 기준으로 산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穀物自給率의 경우이다.

食糧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穀物이며 國際간에 있어서 식량사정의 비교도 곡물자급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穀物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은 거의 자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실질적인 식량의 자급능력은 이 곡물 자급률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際分類상 곡물로 분류되고 있는 쌀, 보리, 밀, 옥수수를 대상으로 하여 곡물의 자급률을 별도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산정의 기준은 重量으로 함이 옳을 것이다.

다음에는 主穀自給率이다.

主穀이라 할 경우 글자 그대로 주된 穀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것을 需要측에서 보느냐, 供給측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수요측 입장에서 주로 먹는 곡물로 볼 경우에는 쌀, 밀, 보리가 될 것이고 공급측에서의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곡물로 볼 경우에는 쌀과 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곡 자급률이라 할 경우 당해년도의 주곡 需要量에 비해서 國內에서 얼마만큼 생산

現行 및 修正時의 食糧自給率 比較 (推算)

區分	現 行			修 正 時		
	全體糧穀 自給率	飼料용계 의自給率	主穀自 給率	食品自 給率	穀物自 給率	主穀自 給率
1965	93.9	98.8	102.1	96.2	92.6	93.5
1970	80.5	86.2	96.4	87.7	77.9	80.6
1971	71.2	76.0	84.9	81.4	67.6	69.9
1972	70.8	75.8	92.1	81.0	67.7	70.0
1973	69.4	74.0	89.5	80.1	66.3	69.3
1974	70.3	75.9	87.3	79.3	65.1	71.7
1975	93.0	79.1	93.9	84.7	70.4	75.6
1976	74.1	81.7	99.8	86.0	71.1	78.8
1977	65.1	74.2	91.8	80.7	62.1	71.0
1978	72.6	85.8	106.4	85.5	71.5	85.9
1979	59.8	75.5	90.7	77.5	58.7	75.2
1980	56.0	69.6	87.3	74.0	53.2	66.2
1981	43.2	53.9	67.3	69.5	41.2	51.5
1982	53.0	70.7	91.8	76.1	54.3	71.8
1983	50.2	73.7	100.2	72.7	51.0	77.2
1984	48.9	72.6	101.2	72.5	51.1	68.7

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량 속에 밀이 포함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主穀自給率은 쌀과 보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주곡은 마치 자급이 된 것으로 자위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70년대 중반 이전의 상황을 수정없이 그대로 답습한 데서 비롯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食糧의 安全保障力확보의 판단기준은 예측불능의 사태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본식량인 主穀을 국내에서 얼마만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있으므로 主穀의 자급률은 다른 어떤 지표보다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곡의 자급률은 需要면에서 현실적으로 주곡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밀을 수요량에 포함시켜 산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 現實의인 자급률을 정책지표로 하여 食糧의 생산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金 鐵>